10월의 사양관리포인트

김 성 호 (간 흉 사료 영업 부 장)

1. 기 상

<table>
<thead>
<tr>
<th>일 조 시간</th>
<th>10월 1일</th>
<th>10월 31일</th>
</tr>
</thead>
<tbody>
<tr>
<td>시 올</td>
<td>11시간 48분</td>
<td>10시간 38분</td>
</tr>
<tr>
<td>내 구</td>
<td>11 &quot; 50&quot;</td>
<td>10 &quot; 44&quot;</td>
</tr>
<tr>
<td>광 주</td>
<td>11 &quot; 51&quot;</td>
<td>10 &quot; 46&quot;</td>
</tr>
<tr>
<td>부 산</td>
<td>11 &quot; 50&quot;</td>
<td>10 &quot; 47&quot;</td>
</tr>
<tr>
<td>채 주</td>
<td>11 &quot; 51&quot;</td>
<td>10 &quot; 51&quot;</td>
</tr>
</tbody>
</table>

상기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월중 각 저 방의 일조시간은 매일 약 2분간씩 짧아지므 로 산란계의 경우 검충관리를 철저히 하고 검 충시간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 평균기온은 닭의 생리에 가장 알맞는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기온이 좋아서 자칫하면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향을 보살피 주어주어야 합니다.

2. 육계 및 육성추의 관리 포인트

(1) 육성율을 높이자

최근 육추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육성율의 저하라고 할 수 있다. 산란계의 경우 60~70%의 육성율밖에 안되었 다는 이야기를 듣고가 종종 있다. 이런 저 조한 육성율의 원인은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대개 별사와 연속육추에 의한 질병의 피해 및 환경으로 인한 의외의 순간적인 질수 (암사 및 개, 땅지 등 태동물에 의한 피해)등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좋은 육성을적을 내치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한다.
① 격리육추를 할 것 육추사장 반드시 성계와 격리하고 관리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 범선제의 침입경로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육추희수를 제한할 것 전후(前後)수용계의 범선제가 사열하기 전에 입추를 하게 되면 즉시 오염되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육성율을 향상시킬 수가 없으므로 육추가 끝나면 즉시 수제, 청소, 소독을 하여 산란추의 경우 최소한 3개월이상 계사를 비워두는데 주에 입추를 하도록 육추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환기를 잘 할 것

환기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다. 육추 초기(입추 1~2주 이내)를 제외하고는 창문을 개방하여 육기와 통증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소독을 철저히 할 것

병아리 구입은 위생적으로 사용한 병아리용 판매하는 신용있는 조합장에서 구입하고 주위 시설을 철저히 소독하여 입추하고 육추 및 육성간중에 질병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주 소독해야 한다.
⑤ 예방접종을 철저히 할 것
병아리의 이무리 천지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여도 무균제균으로 사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예방법의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적용란이 개발된 마이크로 뉴ולד보병, 계란 등에 대한 접종작을 세워 천지하게 진행하고 만일 점병에 감염되어 오염된 시설일 경우 다음 육수시기까지 최소한 4개월이상의 기간을 두고 충분히 소독을 하여 계사를 청결화한 후에 다시 육수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2) 육수 관리상의 문제점
① 육수기
병아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건(온도, 습도, 주기)을 만드도록 노력하고 잘을 갖추도록 해주어야 한다. 약습(카바랄리즘)의 위해를 잃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고 디비킹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하며 각종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해야한다. 사료의 교체(전기→후기, 초중추→중추), 사료 적기에 향으로 유의해야 한다.
② 중추기
건강을 드물도록 위생적인 관리하고 잘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환기를 증가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하고 사료를 충분히 급여해야한다.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 일미에 병아리를 잘 관리하여 면역을 즉시 도태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에 적기에 투여해야한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가장 좋은 조건일을 명심하고 직업보호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산란계의 경우 각 품종에 맞도록 반드시 계란급 사료를 하도록 하고 90일 넘겨 전후에 대추사료로 교체하도록 한다.
③ 대추기
전기에 특히 유의하고 최소한 초산 1개월 전에 성체사에 필발시켜야 한다. 성체사가 증상일 경우 탑사의 백신 접종이 체계적으로 함이기, 뉴嫫보병, 산란상 등을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남여 주어야 한다. 마예르민이 많이 발생하는 계군이 이 시기에 재배가 많이 나오므로 발생계는 미리없이 즉시 투여해야 한다. 120일 전후부터 백합사료에 피북을 볼료로 보충해서 주도록 하고 초산 5% 전후에 산란사료로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초산시 특히 산란특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각종 예방접종을 전부 끝마치도록 계획을 세워야한다.
※ 카바랄리즘이상과 디비킹
① 악벽(카바랄리즘)과 그 원인
함의 카바랄리즘은 공통이 되는 바람, 틀을 벗어 떨어 보통, 계란을 떨어 하는 바람 등이 있으나 가장 피해가 심한 것은 공통이 되는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카바랄리즘의 발생 원인은 유전적으로 품종이나 계통에 따라 차이가 있고 계절적으로는 가을을 끝내도 보, 여름에 깔이 발생하며, 사방방향에서 보면 폐사보다 나 케이지 방향에서 며이 발생한다. 위생적인 면에서는 특이생장이 있음을 때 많이 발생하게되며, 환경관리에서는 고온일 때, 휴가가 불량할 때, 너무 밤이 때, 습도가 높을 때 밀사, 길거리, 급수기 등이 부족할 때, 무거지 이상의 품종이 섞여 있을 때 많이 발생한다. 영양학적 면에서는 수협물의 부족, 단백질 부족, 식염 부족,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불균형 등이 원인이 되며 전후가 악습이 있으면 몇에 있는 모든 패드를 배어서 전파시킨다.
② 카바랄리즘의 방지대책
위에서 보았는데 같이 여러가지 발생원인이 있으므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나 일단 발생하면 사태를 어둠에 짙게해 주고, 환기를 찾기 시켜야 되며, 밀사가 되지 않도록 늘어 주고, 사내 온도를 내리고, 물 1바랫소(10L)에 식염 50g을 타서 급수해주고 동시에 종합영양제를 타주면 효과가 있다. 그리고 피해계는 물 달 등으로 발라주어 다시 묻지 않도록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리를 자르는 것이 가장 좋다.
③ 디비킹(부리자르기)의 방법
부리자르는 방법은 상하부리를 같이 자르는 방법과 상층을 갈라 하측을 길게 절단하는 방법이 있으나 후자의 효과가 더 좋으며 부리자르는 부위는 상층을 부리끝에서 $1\frac{2}{3}$ 정도, 하측
음 1/4 정도 되는 것을 절단하는 것이 좋으며 부리를 깔면 후 출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디비킹 후 아물까지 스프레스를 최소한으로 줄여가며 사료와 물은 충분히 공급함.
④ 디비킹의 시기
디비킹의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8주령이전에 절단하던 재생력이 강해져 많이 따라서 한변 더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생주에 실시할 경우에는 1/2경도 찌르지 않고는 효과가 없으며 10주령에 다시 재조정 해 주어야한다. 이론적으로는 8~10주령에 디비킹하는 것이 좋으나, 그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20일령~1개월령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⑤ 디비킹의 이점
1. 실시방법이 간단하고 정비가 적게 된다.
2. 투명에 의한 상태를 방지할 수 있다.
3. 신경파미질유출로 육성할 수 있다.
4. 시간을 해양한후 파과란면(破卵面)을 줄임
5. 사료효율이 좋아진다.
6. 우영순위가 완화되고 탑을 고르게 키움.
7. 평탄 수용수수를 높일 수 있다.
8. 라리(특히 집란시)를 쉽게 할 수 있다.

3. 시간제의 관리 포인트
① 몸주가 초산을 시작하는 탈이므로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초산체가 있으면 밸리 실시해야 된다. 작년 가을주 이전의 탄은 대부분 친유를 시작하게 되므로 접종시간을 절대로 늦지 말고 수용성비타민제를 공급
② 가움은 파산체가 휴산환유하는 계절이므로 계군의 능력을 조사하여 성적이 낮은 탄은 도태하여 고능력계(고산란계)만으로 계군을 재편성해야 한다.
③ 하순부터 가을에는 온도가 낮아진다. 낮은 생리적으로 추위에는 잘 적응으므로 잡자기 군을 단아 환기부하에 의한 피해를 잊지 않도록 해야된다. 추위에 대한 방한책은 창문 닫는 방법부터 서서히 진행토록 해야한다.